

在美 韓人 老人의 生成感에 관한 研究

吳 京 錫

이 研究는 生成感이 美國에 거주하고 있는 韓人 老人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質的 研究方法이 사용되어졌으며, 특히 인터뷰와 參與觀察法이 사용되었다.

연구분석에 의하여 在美 韓人 韓人은 그들의 生成感 표현형태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각 집단의 명칭은 '周邊화된 老人', '살아남고 있는 老人', '維持하고 있는 老人', '統合된 老人'으로 命名되었다.

'周邊화된 老人'들은 生成感에 대해서 분명한 욕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욕구도 없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고 있는 老人'들은 次世代에 대한 關心을 表明하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生成感에 대한 표현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主觀的 生成感의 표현은 매우 적고 制限的이다.

'維持하고 있는 老人'들의 共同體的 生成感은 가족이라는 範疇를 넘어서 친구, 이웃, 그리고 작은 공동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生成感 表現은 生産的 또는 技術的인 生成感이라고 할 수 있으며, 後孫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보임으로써, 主觀的 生成感에 대해서도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다.

'統合된 老人'들은 매우 강력한 가족과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老人集團과 비교하면 그들의 관심과 돌봄은 훨씬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들은 문화적 또는 창조적 生成感を 表現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이고 있다.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鄭基源·徐美卿 博士께 감사드립니다.

I. 序論

이 연구는 在美 韓人 老人들의 生成感 (generativity) 표현에 관한 것이다. 發達心理學者인 Erikson(1950; 1982)이 말하는 인간발달의 社會心理 8段階 중에서 中年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生成感이 과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노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고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한 한인 노인들의 삶의 모습을 生成感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통해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이다. 한국의 노인들도 健康退化, 經濟力 喪失, 役割喪失, 孤獨感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인 노인들은 이러한 네 가지 고통에 더하여 移民으로 인한 삶의 根據 變移, 言語疏通의 문제, 交通의 문제 등으로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한인 노인들이 자신들의 生成感を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한 試圖이다.

生成感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Erikson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 당시 심리학적 관심이 주로 아동에게 국한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全生涯에 걸친 社會心理 段階를 발표한 그의 업적은 놀라운 것이었고 현재까지도 그의 8段階 이론은 많

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의 8段階 이론 중에서 生成感和 自我統合에 관한 後續 研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Kotre(1984)와 McAdams(1986; 1992) 등에 의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生成感에 대한 연구분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他人種이나 다양한 年齡階層에 따른 研究의 결과는 全無한 상태이다. Kotre나 McAdams의 연구는 中流層 白人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成人人口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他人種이나 老人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연구는 生成感에 관한 한 白人 이외의 타인종에 대한 그리고 노인만을 集中的으로 다룬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끌여오지 못했던 한인 노인들에 대한 開拓者的 研究이기도 하다. Kotre의 연구는 生成感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McAdams는 生成感이 이루어지는 7가지 요소를 포함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生成感이 이루어지는 實證的인 例들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한인 노인들의 삶의 모습, 생성감과 자아통합, 그리고 교회생활이라는 3가지 주요 요소를 서로 力動的인 작용 속에서 韓人 老人들에 대한 生成感 표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韓人 老人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주변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어떠한 方法으로 자신

들의 삶의 자취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하는
가를 밝히고자 노력한 研究이다.

II. 理論的 背景

生成感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이다 (Erikson 1964, 130). Erikson에 의하면 사람은 中年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한 욕구를 채워 줄 무엇인가 象徴的인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년이 되면 사람은 자식이나 직장 동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一般的인 예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Erikson은 또한 生成感을 좀 더 세분하여 生理的, 生産的, 그리고 創造的 生成感이라고 묘사한다. 生成感 위기를 잘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利己的인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Kotre(1984)는 Erikson의 生成感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Erikson은 生成感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 반면, Kotre는 “자신은 죽어서도 계속 남아

있고자”하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Kotre는 生成感을 “자신은 죽고 없어지더라도 삶이나 일을 통해서 계속 남아 있을 자신의 실체를 투자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를 내린다(1984, 10). Kotre의 해석에 따르면, 生成感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신화(legacies) 즉,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肉體는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삶의 모습은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Kotre는 生理的, 父母로서, 技術的, 그리고 文化的인 네 가지 형태의 生成感을 묘사하고 있다.

McAdams와 de St. Aubin(1992)은 다음 세대를 위한 個人的, 그리고 문화적인 목표와 관련된 일곱 가지 심리·사회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生成感 模型을 만들었다. McAdams와 de St. Aubin의 모형의 요소들은 文化的 要求, 內的 欲求, 關心, 信賴, 關與, 行動, 그리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일곱 가지 요소들 중에서 두 가지 즉, 文化的 要求와 內的 欲求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진다. McAdams와 de St. Aubin은 文化的 要求와 內的 欲求是 生成感에 대한 動機的 根源이라고 말한다. 즉, 이 두 가지가 서로 相互作用을 하여서 生成感에 대한 動機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生成感에 대한 욕구는 文化的인 要求에 의해 制約 또는 激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현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McAdams와 de St. Aubin은 生成感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生成感의 사회적 측면을 포함할 필요를 인식하였으며, 文化的 要求는 發達的 期待와 社會的 機會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發達的 期待란 成人이 일을 하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貢獻할 것을 社會가 期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社會的 機會로 인하여 成人은 이러한 社會的 期待感을 成就할 수 있는 機會가 制限되기도 하고, 活力을 띄게도 된다는 것이다. 教育的, 社會·經濟的, 職業的, 政治的, 宗教的, 그리고 다른 機會나 選擇에 따라서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적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生成感에 대한 동기적 근원의 또 다른 측면은 內的 欲求이다. McAdams와 de St. Aubin은 두 종류의 內的 欲求를 말하고 있다. 첫번째는 “象徴的 永遠不滅性”이며, 이것은 “자아를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확장시키거나, 개발하는 경향”이라고 정의된다(1992: 1005). 이 상징적 영원불멸성에 대한 生成感을 主體的 生成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Kotre가 이야기한 “자신은 죽더라도 계속해서 남아 있고자”하는 개념과 비슷하다. 內的 欲求의 두번째 측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중요하게 쓰임 받고 싶

은 욕구”이다(1992: 1005). 이러한 生成感을 共同體的 生成感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主體的 生成感과 共同體的 生成感에 대한 無意識的인 內的 欲求는 文化的 要求의 外的인 힘과 함께 합쳐져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적인 關心과 保護를 가져오게 된다.

Erikson이 “生成感 危機의 解決은 돌봄과 關心이라는 自我의 힘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McAdams와 de St. Aubin도 生成感에 대한 동기의 두 요소는 서로 작용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關心을 갖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Ⅲ. 研究方法論

白人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토대의 부적절한 이용과 제한된 사용 때문에, 이번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은 특히 民族誌學(ethnography)이라고 말할 수 있는 質的 研究方法論이 사용되었다. 민족지학이란 反影과 行動의 相互關係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집단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자료들을 사용하며, 이러한 이해는 그 집단 안에서 實際的으로 적용되어 얻게 되는 새로운 洞察에 의해서 보충되고 변화된다는 것이다(Lincoln and Guba, 1985). 민족지학은 민족지학 연구자가 바로 연구의 道具가 되며, 研究의 背景은 인위적

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민족지학 연구자는 그 연구 대상의 문화와 社會體系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면서 선택한 사회상황을 분석한다. 연구표본은 意圖的이며 가능한 한 표본이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인터뷰와 參與觀察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회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 20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기초를 두고 한 질적 연구이다. 한인 노인 20명과의 個人的 그리고 集團的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日常的인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인터뷰에 더해서, 參與觀察法이 또 다른 補完的인 研究方法으로 사용되었다. 한인 노인들의 家庭과 敎會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現場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고, 그 現狀을 좀 더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 방법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여러 現狀의 本質을 통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었다(Spradley, 1980; Boehm and Weinberg, 1987). 한인 老人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자가 이들과 연구현장에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들의 자연스런 모습 속에서 관찰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研究者로 하여금 研究對象者의 軀架(frame of refer-

ence)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였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參與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平常時 生活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바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活動이다(theory-generating activity). 기존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非規格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參與觀察者로서 豫見할 수 없는 繼續 過程에 매우 조심스런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자는 첫 觀察을 시도한 후에 다음 觀察에 어떠한 方法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臨時的인 結論을 내리고, 다음의 觀察을 시도한 후에 臨時的인 結論을 다시 개정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1. 研究標本

시카고 郊外에 위치한 세 곳의 교회로부터 60세 이상의 한국 노인 20명이 研究의 對象이 되었다. 세 곳 교회의 목사들과 연구표본을 위해서 協議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세 곳 교회에서 각각 2년씩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情報와 知識이 또한 이용되었다. 각 교회와 노인들에게 연구를 위한 허가를 먼저 받았다.

연구표본은 數的, 居住 形態, 性別, 그리고 結婚 狀態에 따라서 意圖的으로 表出되

었다. 8명이 한 교회로부터 뽑혔으며, 다른 두 교회로부터 각각 6명씩 표출되었다. 10명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10명은 독립된 거주 형태를 갖고 있었다. 性別面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10명씩이었다. 10명은 配偶者가 살아있었으며, 8명은 혼자가 되었고, 2명은 配偶者가 살아 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別居의 상태였다. 평균적으로 나이는 72.05세였으며, 미국에 이민온 지는 11.65년이었다.

2. 인터뷰 過程

한국 노인들은 한국말을 그들의 제1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個人的으로든 集團的으로든 인터뷰는 한국말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마다 보통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씩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인들의 交通便利와 私生活 保護를 위해서 노인들의 집에서 個人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갑작스런 방해와 요청에 의해서 두 사람에게서는 인터뷰 과정이 한번 더 이루어졌다. 集團 인터뷰는 그 집단과 목사님의 허락 하에 각각 세 교회에서 두번씩 주일날 예배 후에 이루어졌다. 한번은 豫備 모임이었고, 또 한번은 연구결과를 報告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견된 결과는 개인별로 보고되었다.

인터뷰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질문(附錄 참조)을 하나의 指針으로 사용하였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문도 많

은 融通性을 갖고서 사용되었다. 노인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life story)를 하도록 격려되었다(McAdams, 1988; 1993; McAdams and Ochberg, 1988). 그들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교회 생활은 어떠한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등과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도록 격려되었다. 이와 같은 삶의 이야기는 인터뷰 과정에서, 그리고 資料를 蒐集하는데 사용되어진 매우 친숙하고 편안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3. 資料分析

가. 第1段階

符號化(coding)를 위한 첫번째 단계는 Kotre의 방법과 비슷하다. Kotre는 긴 삶의 역사를(보통 타자기로 친 것으로 몇 백 장에 달하였다) '壓縮(compression)'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1984:31). 그는 각 조사대상자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이슈(issue)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백 장에 달하는 原稿를 25장 내지 30장으로 壓縮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 분석의 첫번째 단계는 인터뷰 대상자 각각의 原稿 全體를 分析의 單位로서 읽는 것이었다. 인터뷰 원고는 타이프로 쳐서 10장 내지 30장에 이르는 分量이었는데, 보통은 15장 정도였다. 인터뷰 원고는 세 장으로 壓縮되었는데, 각 장은 각

분야 즉, 삶의 모습, 生成感과 자아통합, 그리고 교회생활에 할당되었다. 이렇게 압축된 3장의 요약은 계속되는 文句나 主題 또는 像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되었다.

나. 第2段階

압축과정이 끝난 다음, 먼저 삶의 모습에 관한 부분이 분석되었다. 세 집단이 구분되어져서 나타났다. 즉, 3명이 속한 周邊化된 集團(marginal group), 4명이 속한 統合된 集團(integrated group), 그리고 中間 集團(between group)으로 나타났다. 周邊化된 집단에 속한 노인들은 미국 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삶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런 사람들이었다. 統合된 집단에 속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中間集團은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속하는 노인들이었다. 각 집단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공통된 主題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다. 第3段階

이렇게 세 집단이 나타난 후에, 生成感和 自我統合에 관한 인터뷰 要約이 분석되었다. Kotre가 말한 生成感의 4가지 형태에 기초해서 각 집단의 生成感의 공통된 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生成感和 자아통합에 관한 분석이 끝나자 주변화된 집단과 통합된 집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生成感和 자아통합에 관한 분석 이후에 中間集團(between group)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새롭게 나뉘어진 집단은 각각 '살아남고 있는 집단(surviving group)'과 '維持하고 있는 집단(managing group)'으로 命名되었다. '살아남고 있는 집단'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각각 독특하게 生成感和 자아통합을 표현하고 있었다. 각 집단의 공통된 隱喩, 主題, 像이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이렇게 네 집단으로 나뉘어진 한인 노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중에서 특히 生成感和 관련된 부분으로 네 집단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IV. 周邊化된 老人 (Marginal People)

인터뷰가 이루어진 在美韓人 老人 20명 중 3명이 바로 이 집단에 속하였다. 자료 분석에 의하면, 周邊化된 노인들은 無氣力感, 正體感 混亂, 絶望感, 그리고 Anomie로 고생하고 있다. 이들의 生成感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도대체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일까? 만약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다음에 다루어지며, 특히 주변화된 노인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關心의 不足, 다른 사람에 대한 非難, 罪意識, 子女 養育

의 失敗, 그리고 家庭의 傳統 傳授의 失敗에 관한 것들이 설명되어진다.

1. 相關없어요

生成感에 대한 內的 欲求의 한 측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도와주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러나 주변화된 노인들에게 이러한 욕구는 제대로 表現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集中되어 있으며, 다음 世代에 대한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어려운 생활과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自我 耽溺現狀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주변화된 老人들은 Erikson이 말한 生理的, 生産的, 創造的 生成感, 또는 Kotre가 말한 生理的, 父母로서의, 기술적, 문화적 生成感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특히 주변화된 노인들에게서는 생산적 生成感이나 창조적 生成感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 모두가 그들의 자녀나 손자에 관한 것이어서 生理的 生成感を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한 이야기의 語調마저도 매우 否定的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식이란 결국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지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나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에 하

고 나쁜관계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애가 결혼하고 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큰아들하고 며늘애(며느리)하고 같이 살려고 했지요. 그것이 한국적이잖아요? 큰아들은 당연히 부모하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며늘애가 아들을 꼬셔서는 우리를 떠나서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사이 젊은 아이들 이기적인 것 아니잖아요? 큰아들, 개는 이제 버린 자식이지요. 그 애들하고는 더이상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개들은 개들이고 우리는 우리지요. 개네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자식들, 손자들 생각할 틈도 없어요. 나는 그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Kyung K.)

2.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예요

다음 世代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周邊化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敵對的인 感情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현실, 삶이 어려운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하여 非難의 對象이 他人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으로 충고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민교회에는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두가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로만 알아요. 골칫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속으로 경멸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도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이민 교회 교인들은 한국에서는 교회에 안 다니다가 미국에서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질

서도 없고 예절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죠. 자기들이 잘난 줄만 알고 교회 일도 세상 일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것인데요. 교회에 와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몰라요. 목사님이 왜 자기들에게 잘 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이지요. 불만이 생기면 항상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 비하면 이민 교회 교인들은 성숙하지를 못하지요.” (Phil P.)

주변화된 노인들은 각각 非難의 對象이 달랐지만 - 家族에 대하여, 敎人들에 대하여, 社會에 대하여 -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난은 그들의 삶의 현장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3. 다 내 罪지요

주변화된 노인 세 사람 모두가 罪意識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過去에 대한 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특히 미국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실수에 대한 後悔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회가 그들의 죄의식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에 있는 나의 가족은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 식구가 나를 오랜 세월 동안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렸지요. 내가 진실로 그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을 내버려두어도 안되고 또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았어도 안되었지요. 지금은 죽어버린 내 집사람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인생 살다가 좋은 꼴 한 번도 못보고 죽고 말았지요....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지만 나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Soon H.)

4. 子息農事 망쳤습니다

周邊化된 노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象徵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자식들에게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家訓이요? 나로서는 내 자식에게 남길만한 家訓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도 家訓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좇아올까봐 무섭습니다.... 남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지요, 가치 있는 것도 없지요, 내가 남길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요. 자식 농사 망친 놈이 자식에게 뭐라고 할말이 있겠어요.” (Soon H.)

5. 祖上들 빌 낮이 없어요

象徵的 永遠不滅性과 관련된 또 다른 主題는 周邊化된 노인들의 집안 傳統에 대한 罪意識이다. 이 노인들은 자신들이 집안 傳統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한 自滅感을 느끼고 있다. 자신들의

대에 와서 家風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은 집안 傳統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지만 자식들이 집안 傳統을 제대로 이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들의 상징적 영원불멸성은 代理의이다. 즉, 자신들은 집안의 傳統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科擧에 及第한 사람들이 많지요. 원래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내 둘째 아들이 하루 빨리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애가 박사를 받으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 애는 우리 힘을 별로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Kyung K.)

6. 要約

周邊화된 老人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음으로 해서 生成感에 대한 분명한 욕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욕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들의 痕迹을 죽은 후에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積極的인 關心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無氣力하고 拋棄된 삶을 살고 있다 하겠다.

V. 살아남고 있는 老人 (Surviving People)

20명의 老人 중 ‘살아남고 있는 노인 (surviving people)’이라 命名된 집단에는 일곱 명이 분류되었다. 이 집단에 분류된 일곱 명의 노인 중 세 명은 子女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네 명은 獨立해서 살고 있다. 세 명은 여자 노인이고 네 명은 남자 노인이다. 네 명은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으며, 세 명은 혼자 된 노인들이다.

앞에서 周邊화된 노인들은 次世代에 대한 無關心, 다른 사람에 대한 非難, 罪責感, 子息養育의 失敗, 그리고 家風 傳授의 失敗 등에 共通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周邊화된 노인들과 비교하여,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분명히 次世代에 대한 關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罪責感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Kotre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生成感 중에서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의 生成感은 父母로서의 生成感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象徵的 永遠不滅性에 관한 生成感의 表現은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요점들이 다음에서 설명된다.

1. 내 애들은 나를 必要로 합니다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과 周邊化된 노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關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가족간의 문제가 있지만,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助言을 할 때,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에게서 反復적으로 발견된 문구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것이다.

“남편이 죽게 되자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 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기와집 한 채 뿐이었죠.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집을 팔기로 했지요. 그러나 사업에 두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지요. 생전 사업이라고는 해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니 뭘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두 번 망한 후에 A지역에 있는 B여대 앞에다 스낵 숍(snack shop)을 하나 차렸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되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큰 딸하고 막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지요. 혼자 된 과부가 외국으로 두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치우면서 10년 이상을 스낵 숍에서 보냈지만 내 온 힘을 다해서 자식들만큼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지요. 내 아이들은 분명히 나를 필요로 했지요.” (Yong C.)

2. 나를 위해서는 말이 必要없어요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의 內的 欲求是 주

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養育하고, 支援하며, 또는 그들에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McAdams and de St. Aubin, 1992: 1005). 그러나 또 하나의 내적 욕구인 象徵的 永遠不滅性은 거의 표현되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主張하고, 擴張하고, 發達하고자 하는 욕구인 象徵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否定的이고, 冷笑的이며, 또한 반응 자체가 매우 적었다. “자녀나 손자에게 남기고 싶은 가르침이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共通的 反應은 “남길 게 없어요”라는 것이었다.

“비석에 어떠한 말이 쓰여지기를 원하느냐구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 말도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첫 남편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조카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또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지만, 그래서 안되었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사람인데요.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첫 남편의 무덤 옆에 같이 묻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Dong L.)

3. 要約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次世代에 대한

關心을 표명하고 있다. 주변화된 노인들에 비해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生成感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父母로서의 生成感이다. 生成感의 主觀的이고 積極的인 표현 방법인 象徴的 永遠不滅性에 대해서는 표현이 매우 적고 制限的이다.

VI. 維持하고 있는 老人 (Managing People)

인터뷰한 20명의 노인 중에서 6명이 '維持하고 있는 노인(managing people)'이라 命名된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3명의 남자노인과 3명의 여자노인으로 이루어졌다. 4명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1명은 과부이고, 나머지 1명은 별거중이다. 흥미있는 현상으로는 6명의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 중 단 1명만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5명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의 生成感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祈禱 同志들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의 共同體的 生成感은 家族이라는 範疇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의 관심과 돌봄은 그들의 가족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

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폭 넓은 것이다.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의 대답은 전형적으로 "애들이나 손자들이 나를 필요로 하겠지요"라는 것이다. 그러나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들의 家族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生成感의 표현 범위는 그들의 親舊, 敎會사람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싶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깐 답답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 사람은 돈이 조금 따로 있단나요. 목사님도 무어라고 말 못하시더라구요. 그 때 얼마나 나는 창피했는지 몰라요." (Byung L.)

2. 記憶되기를 願하지요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과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을 區別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분명히 後世들에 의해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아남고 있는 노인의 象徴的 永遠不滅性은 거의 發達되어 있지 않음,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 냉소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 자손들에게 記憶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碑石에다 어떤 말이 쓰여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들의 의사를 갖고 있다.

“음, 어떻게 말할까요. 人生의 激戰場에서 승리한 환희에 찬 戰士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지만, 언제나 희망이 있지요. 어려울 경우라도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것입니까? 인생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Sang P.)

3.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의 비석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意見에 더하여,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또한 家門의 傳統과 그들의 신화 남기기(legacy-leaving)에도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家訓을 남기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확실히 무엇인가를 살다가 간 발자취로서 남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신화 남기기에는 性別에 따라 조금 다른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維持하고 있는 女子老人들에게서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의 象徵的 永遠不滅性은 格言式의 形態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子孫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데, 그 형태가 德目的의 모양새 즉, 正直, 誠實, 사랑, 和睦, 좋은 믿음, 올바른 삶, 最善 등의 말, 또는 格言式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분노에 가득차고 신경질적이었지요.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죠. 자식들에게 그저 성경 말씀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는 말씀입니다.” (Se P.)

維持하고 있는 女子老人들에 비하여, 男子老人들은 그들의 象徵的 永遠不滅性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女子老人들의 象徵的 永遠不滅性은 그녀들의 苦痛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格言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男子老人들은 그들의 成功談을 통해서, 그리고 物質的인 形態로 자신들의 象徵的 永遠不滅性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例가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40년 동안 교직에 몸 담은 후 은퇴할 때 받은 기념패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기념패는 나의 땀과 노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딸이 간호원인데, 개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가르친다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셈이지요. 나는 딸이 내가 남긴 기념패를 볼 때 나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Sang P.)

4. 要約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의 共同體的 生成感은 분명히 家族이라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즉 그들의 生成感은 家族에 관한 關心과 돌봄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자그마한 共同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의 生成感은 生産的 또는 技術的 生成感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손에게 무엇인가 物質과 같은 분명한 것을 남기고 싶어한다. 자손에게 무엇인가 분명히 남기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강력한 象徴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家訓을 통해서 또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고자 한다.

VII. 統合된 老人 (Integrated People)

20명의 노인 중, 네 명이 統合된 노인(integrated people)으로 분류되었다. 그들의 결혼상태는 다양한데, 한 사람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이고, 두 사람은 배우자를 잃은 상태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別居狀態이다. 두 사람은 여자이고 나머지는 남자노인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네 사람 중 아무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없었으며,

자신들만의 獨立된 居住形態를 하고 있었다.

1. 나의 祖國, 나의 民族

무엇보다도 統合된 노인들의 生成感은 創造的 또는 文化的 生成感이다. 물론 統合된 노인들의 共同體的 生成感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統合된 노인들의 生成感은 生産的 또는 技術的 次元의 生成感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關心과 돌봄은 “維持하고 있는 老人”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廣範圍하다. 統合된 노인들은 나라에 대한, 民族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地球에 대한 關心과 돌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歷史에 대한 關心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 統合된 노인들이다.

“이 아파트에서 가만히 보면 젊은 (한국) 사람들이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서는 公衆道德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젊은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함부로 껌이나 종이를 아파트 안에서 버리는데도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 꼬마 애들이 떠돌고 울고 다 엉망을 만들어 놓아도 부모들은 아는 척도 안해요. 이 아파트에는 온갖 民族이 다 함께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노인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을 깔보면 안되지요. 나는요, 손자에게 예절과 公衆道德을 가르칩니다. 언제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하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휴지는 꼭 휴지통에 넣으라고 하고, 밥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고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와도 交流가 이루어져야지요. 나야 이제 다

늙고 말도 못해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미국의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지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식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Son J.)

2. 獎學金을 만들고 싶어요

앞에서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象徴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女子老人들은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면서 格言과 같은 德스러운 말로써 표현하고 있지만, 男子老人들은 物質的인 것들을 남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統合된 노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만약 그들의 삶의 흔적을 後世에까지 남기고 싶어 한다면 어떠한 神話를 남기기를 원하는가?

흥미롭게도 統合된 노인들의 神話 남기기의 방식은 역시 物質的인 領域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女子老人과 男子老人들 모두가 社會에 財政的 또는 物理的인 貢獻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 여자노인들은 특히 獎學金을 만들어서 社會에 貢獻하기를 원하며, 남자노인들은 그들의 故鄉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삶의 자취를 남기겠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男子老人과 女子老人 共히 독특한 物質的인 貢獻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神話 남기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학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사실은 23살

때에 죽었습니다. 참 잘생기고 똑똑했는데. 獎學金의 이름은 ‘YH 獎學金’이라 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들 이름이 YH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얼마 안되는 장학금도 내가 우겨서 만들었지요. 러미지 세일(rummage sale)도 하고 교인들에게 음식도 팔고 해서 그 기금을 마련했지요. 500불을 만들어서 神學生에게 獎學金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밀이지만 내가 십만불짜리 生命保險을 들어봤어요. 나중에 그것을 獎學金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요.” (Son J.)

3. 要約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과 비교하여 統合된 노인들은 매우 강력한 家族과의 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支援하는 소위 核心集團이 있다. 흥미롭게도 統合된 노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私生活과 自由를 한편으로 維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이나 손자들과 親密感을 계속 維持하고 있다. 그리고 統合된 노인들은 강력한 삶의 滿足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그들 나름대로 잘 適應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땅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민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制限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제한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다. 統合된 노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子女와 未來에 대한 강력한 希望을 보이고 있다. 希望이란 統合된 노인들을

다른 집단의 노인들과 구별해 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統合된 노인들의 生成感 표현은 創造的 또는 文化的이며, 主體的 生成感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VIII. 結論: 生成感에 관한 提言

한국 이민노인들은 人口論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 激變의 渦中에서도 한국의 고유한 文化的, 社會的 關係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變化의 緊張 속에 있으면서 移民老人들은 과연 生成感を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번 연구는 McAdams가 말한 것처럼 生成感은 文化的인 要求와 內的 欲求 사이의 相互關係의 產物이라는 것임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이 生成感を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內的으로 生成感에 대한 욕구만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社會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生成感を 표현하기를 期待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生成感を 표현하게 되는 데는 적어도 바로 이 두 중요한 요소 즉, 그 사람이 속해 있는 社會的 要求와 個人的 生成感에 대한 欲求가 함께 작용할 때 그 사람의 독특한 生成感이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한인 노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도 분명히 나

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周邊화된 노인들은 노인들에 대한 社會的 期待値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資源 사이의 엄청난 差異로 인하여 自身들과 後孫들의 未來에 대하여 希望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文化的으로 노인들은 尊敬을 받고 指導者的 立場에 있어야 된다는 期待値가 있지만, 周邊화된 노인들에게는 그러한 기대치를 채울 만한 아무런 資源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乖離現狀으로 인하여 生成感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周邊화된 노인들은 자신들의 制限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生成感を 위한 感情的 資源을 所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現在의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絶望感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世代를 위한 關心과 돌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周邊화된 노인들은 生成感を 위한 內的 欲求가 文化的인 要求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반적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制約을 당하고 있는 典型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文化的 要求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內的 欲求마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화된 노인들과 비교하여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다음 世代에 대한 關心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生成感은 주로 父母로서의 生成感에 制限되어 있으며, 象徵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매우 약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변화된 노인들에 비하여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이 이러한 소위 “進歩된” 生成感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生成感이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要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生産的 또는 技術的 生成感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象徴的 永遠不滅性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統合된 노인들은 文化的 또는 創造的 生成感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은 未來와 後孫에 대한 강력한 希望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周邊化된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統合된 노인들까지의 生成感에 대한 그들의 표현을 하나의 모양으로 나타내 본다면 부채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共同體의 生成感에 集中하여 본다면, 周邊化된 노인들에게는 生成感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父母로서의 生成感을 나타내고 있으며,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父母로서의 生成感에 더하여 技術的인 生成感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統合된 노인들은 父母로서의 生成感和 生産的인 生成感에 더하여 文化的인 生成感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신화 남기기(legacy leaving)라고 할 수 있

는 主體的 生成感의 면에서 본다면, 周邊化된 노인들은 전혀 자신들의 신화 남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살아남고 있는 노인들은 매우 약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또한 維持하고 있는 노인들은 강력한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統合된 노인들도 매우 강력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生成感에 대한 理論이 40여 년 전에 心理學界에 소개가 되었지만, 生成感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왕성한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生成感에 관한 연구는 거의 모두가 Erikson의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 연구 도구의 타당성,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awley, 1986; McAdams and de St. Aubin, 1992; Ochse and Plug, 1986; Riff and Heincke, 1983; Logan, 1993).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生成感的 關心을 文化的 要求와 內的 欲求 사이의 關係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McAdams와 de St. Aubin이 말하고 있는 모형의 7가지 요소가 서로 相互關係를 맺고 있는 모습을 잘 설명하여 주는 具體的 事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文化的 要求, 內的 欲求, 關心, 信賴, 關與, 行動, 그리고 이야기가 서로 關係를 맺어가면서 生成感이 발전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한인

이민노인들이 그들이 처한 인생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生成感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 어떤 한인 노인들은 生成感에 대해서 전혀 욕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어떤 노인은 生成感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具體的인 연구라고 하겠다.

끝으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McAdams의 일곱 가지 요소로 된 生成感 모델에 관한 것이다. 즉 McAdams는 生成感이 표현되는데 필요한 動機的 資源을 文化的 要求와 內的 欲求로 나누고 있다. 文化的 要求는 각각 發達論的 期待感과 社會的 機會로 나뉘어지고, 또한 內的 欲求는 主體的 生成感和 共同體的 生成感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動機的 資源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보다는 文化的 要求와 社會的 機會, 그리고 內的 欲求로 나뉘어지는 것이 좀 더 나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發達論的 期待感은 文化的 要求의 한 요소로 들어 갈 수 있고, 文化的 要求의 한 요소였던 社會的 機會가 文化的 要求和 同等한 위치로 올라오고, 內的 欲求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인 노인들을 보게 되면 文化的 要求和 個人的 生成感에 대한 欲求 사이에는 社會的으로 그 노인에게 얼마만한 社會的 機會가 주워졌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生成感を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社會的 機會가 거의 없는 周邊化된 노인들은 文化的 要求和 個人的 欲求가 있더라도 生成感を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統合된 노인들은 社會的 機會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으므로 즉, 경제적·정서적·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노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고 범주가 넓은 生成感を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Boehm, A. E. and R. A. Weinberg, *The Classroom Observer*,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7.
-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 _____,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 _____, "Reflections on Dr. Borg's Life Cycle," *Daedalus* 105(2), 1976, pp.1~28.
- _____,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82.
- Guttman, D., *Reclaimed Powers: Toward a New Psychology of Men and Women in Later Life*, New York, Basic Books, 1987.
- Hawley, G.,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Eriksonian Measure of Psychosocial Developm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2804A, 1986.
- Jung, C. C.,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33.
- Kotre, J. N.,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Marylan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 Lincoln, Y. and E.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shers, 1985.
- Logan, R. L.,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Gener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93.
- McAdams, D. P.,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New York, Guilford Press, 1988.
- _____, *Stories We Live By*,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3.
- McAdams, D. P. and E. de St. Aubin.,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992, pp.1003~1015.
- McAdams, D. P. and R. L. Ochberg., ed., *Psychobiography and Life Narrativ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88.
- McAdams, D. P., K. Ruetzel, and J. Foley.,

"Complexity and Generativity at Mid-life: Relations Among Social Motives, Ego Development, and Adults' Plans for the Fu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986, pp.800~807.

Ochse, R. and C. Plug.,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of Erikson's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986, pp.1240~1252.

Riff, C. D. and S. G. Heinke., "Subjective Organization of Personality in Adulthood and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983, pp.807~816.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Fortworth: Holt, Rinehart and Wilson, Inc., 1980.

附 錄

Interview Questions

I. Introduction

1.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e U.S.? How many children? How old are you? Tell me about your living arrangement.
2. Tell me about the circumstances of coming to the U.S..
3. Tell me about the experiences of living in the U.S..

II. Generativity

A. Being needed

1. When do you feel you are needed? By whom? In what ways? Who comes to you for an advice?
2. Do you feel you are teaching, producing, or creating someth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When? Tell me an experience. Any volunteer work? Church work?
3. How'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ow

is the family important for you?
What's your hope for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4. Is there any experience you would like to do or contribute that you feel is blocked?

B. Symbolic immortality

1. If you write you own version of family precept(tradition), what it would be? Why is it important for you?
2. One of our proverb says that a tiger leaves his/her skin and a human being leaves his/her name. What things/ sayings/legacies do you want leave for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3.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4. How do you want your children to continue your commitment/traditions?

<Summary>

Emerging Patterns of Generativity among Korean Immigrant Elderly

Kyung-Seuk Oh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Korean immigrant elderly's expressions on generativity. Twenty Korean immigrant elderly (60+ years old) were interviewed. Four different groups emerged from the study: Marginal people, Surviving people, Managing people, and Integrated people. Each of the four groups shows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itself from the other groups.

Marginal people struggle with the gap between the cultural expectation and their available resources. Their miserable life situation does not give any emotional resources for generativity. Marginal people do not show any strong desire for the need to be needed and legacy leaving.

Surviving people have a concern for the next generation. However, especially surviving elderly men have guilty

feeling because of their failure of carrying out the family tradition. They show their generativity especially in terms of parental generativity. However, when it comes to symbolic immortality their generativity seems to be quite weak.

Managing people's need to be needed seems to cross over the family boundary. Their generativity might be called productive or technical generativity. The fact that managing people definitely want to be remembered in some manner seems to back up the argument that they have a strong symbolic immortality.

Integrated people have very strong family relationship and have some kind of core group. Even though their resources might be limited, they know how to beat the system. Integrated people show cultural generativity and the strong desire for symbolic

immortality. They have strong hope for their future and their descendants.

This study confirms that Korean im-

migrant elderly are not an homogeneous people.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